

#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과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 미 숙(전남대 박사) · 김 경 신(전남대 교수)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신장애인 가족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정신장애인 기능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기능수준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때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과 가족탄력성,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과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가족탄력성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경기, 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주부양가족원 406명이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정신보건센터 23개소, 사회복지시설 중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용시설 27개소, 정신과 전문병원 1개소로 총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

독립변인 정신장애인 주부양가족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매개변인은 가족탄력성 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test 방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각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을 위해 AMOS 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결론

첫째,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의 일반적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에서 정신장애인은 ‘일상생활 문제해결’ 영역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대인관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둔마, 무욕증 등의 음성증상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정신장애인의 음성증상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일환으로 사회기술 및 대인관계 기술훈련 등이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기능수준의 변화 정도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신장애인이 이용 중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받고 있는 정신재활서비스가 그들이 기능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능수준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자원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재가정신장애인의 78.2%가 미혼(보건복지부, 2011)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직업재활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이용기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설립 목적(정신보건법 15조)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 사회복지제도모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에 부합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모임이나 교육이 주로 환자의 증상 및 약물관리, 가족의 스트레스의 관리,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방법 등 단기적 교육 프로그램들로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기능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을 보전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는 취업 전 교육을 통한 직업준비와 보호작업장, 임시취업 등을 이용한 훈련기간을 두며, 경쟁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정신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과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이 향상되면 가족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며, 기능수준이 저하되면 가족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또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이 직접 경로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가족탄력성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의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처리하며, 재활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적절한 서비스를 획득하도록 전문가 및 기관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가족탄력성을 강화하고 가족의 강점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